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청구전

NOSTALGIA

향수, 근원에 대한 그리움



HANSUNG
UNIVERSITY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김 수 영

석사학위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NOSTALGIA

향수, 근원에 대한 그리움



HANSUNG
UNIVERSITY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김 수 영

석사학위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NOSTALGIA

향수, 근원에 대한 그리움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김 수 영

김수영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선태 (인)

심 사 위 원 김정현 (인)

심 사 위 원 한동호 (인)



HANSUNG
UNIVERSITY



김수영

Kim Suyoung

@jena_painting
yd2360@naver.com

2022 한성대학원 졸업

진채화 전공

2019 한성대학교 졸업 회화와 동양화 전공

NOSTALGIA

향수, 근원에 대한 그리움

김수영 석사청구전



HANSUNG
UNIVERSITY

추억과 레트로

무엇을 주목하고 싶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는다.

가슴 속에서 올라온 어떤 것들인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비롯된 구상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시장바구니가 달린 자전거가 생각났고 오래된 도시정원이 생각났다. 미용실의 이름이 달라도 크게 상관없다. 한편에는 언덕 위에 조그마한 빌라가 떠올랐다. 시장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는 항상 그 풍경 어딘가에 있다.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기도 한다. 어떤 때는 키를 넘는 야자수들이 열을 지어 서있기도 한다. 그곳 어딘가에 내가 서있을 뿐이다.

오래된 간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추억을 없애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오래된 간판들이 많이 있는 곳을 낙후된 지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재개발을 통해 없어져버린 옛 풍경들이 얼마나 많은가.

옛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에 여행을 가보면 수백 년 된 가게들이 옛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다.

허름한 가게들이 서 있는 풍경은 내게 많은 위안을 준다.

하지만 많은 공간들이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되고 없어져버렸다.

이를 어떻게 소환할 수 있을까?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풍경을 낯선 상태의 이미지로 제시한다.

오래된 세월을 간직한 간판을 가진 가게에 대한 기억을 그 장소에서 채집한 향과 시각으로 담아내고, 이 것들을 시각적 촉각적 감흥을 떠올리면서 회화적 방법을 통해 그 정서와 감각을 표현한다.

어렸을 때의 해외여행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

수없이 많은 야자수들, 넓은 풀장에는 돌고래들이 즐겁게 뛰어 논다.

돌고래들은 마당을 뛰어 올라 공중으로 날기도 하고 꿈 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돌고래를 바라보고

약간 비릿한 향도 맡는다.

키 작은 바나나 나무 곁에는 자전거 한 대가 서 있다. 넉넉한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금방이라도 열릴 듯 출입문이 반겨준다. 건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주인공이 벽장의 문을 열고 몬스터의 우주로 나간다. 하와이의 출입문은 어린 시절 벽장의 몬스터 문이었는데도 모른다. 이 문을 열면 이내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그리운 요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층짜리 건물보다 몇 자나 더 크게 자란 야자나무숲에는 어린 시절의 꿈들이 튀어 다닌다. 꿈은 시차를 두고 전개되지 않는다. 오래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오르기도 하고 오지 않은 어떤 미래를 향하기도 한다.

내 그림의 정조(情操)

내 가슴 어딘가에 자리 잡은 하와이의 풍경은 아내 레트로 풍경의 도심정원과 여관 앞의 자전거가 되었다. 오래 된 것들을 주목하거나 겨냥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발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내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림의 풍경이 레트로라고 해서 생각마저 복고적이거나 회귀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벽장의 문을 열어젖히면 나타나곤 했던 미지의 세계 아니었을까?

거기에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놓치고 온 오래된 간판과 고물 같은 자전거와 그 마당에서 뛰어 놀았을 어린 시절의 우리들이 있을지 모른다.

넓은 풀장에는 돌고래들이 튀어 오르다 이내 야자나무 숲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시간의 씨줄과 공간의 날줄들이 섞여 아름다운 한 세계를 이룬다.

그렇다. 노스텔지어다.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레트로 향수가 아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온 보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고 없애버린 그런 풍경들 말이다.

아마도 나는 그것을 어린 시절 하와이 여행에서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열어젖힌 벽장의 문이 오늘 도심의 오래된 가게의 문과 간판과 골목과 그리고 야자나무숲 같은 도심 숲들을 그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그림의 정조(情操)는 외면의 레트로와 내면의 노스텔지어다.

오래된 가게, 오래된 자전거, 오래된 나무숲들은 내게 오히려 고차원적이고 신성한 어떤 것들이다. 내 정조는 화선지의 미적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정조를 포함한다. 내 시선은 항상 잃어버린 향수, 그 본원을 향하고 있다. 나는 오늘 다시 어린 시절의 벽장 같은 화선지의 빗장을 열어젖힌다.

그리고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시 한편을 음미해본다.



하와이리조트
 117x90cm
 기법지에 채색
 2020



정글 영미용실
53x43cm
기법지에 채색
2021



선인장 모텔
30x30cm
화선지에 채색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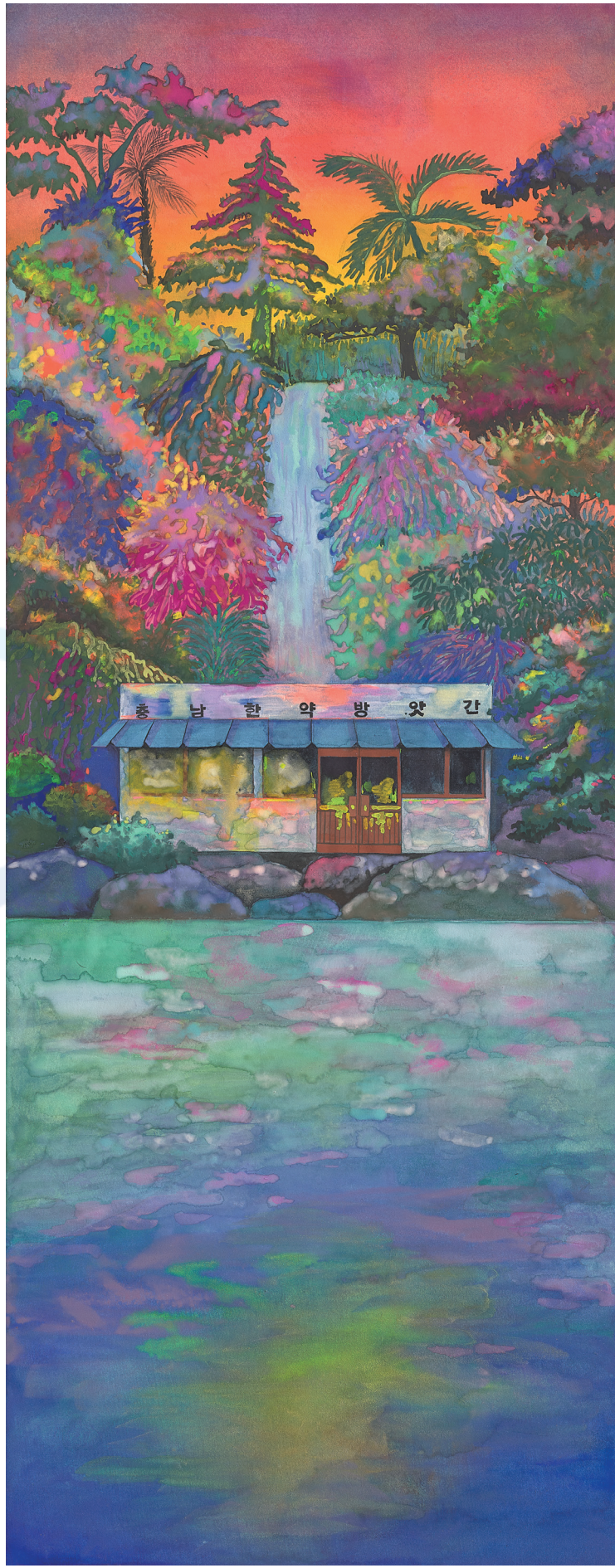
은행빌라
96x60cm
장지에 채색
2022



city night
50x50cm
비단에 채색
2021



비둘기 아파트
73x53cm
장지에 채색
2021



숲 속 충남 한약 방앗간
90x34cm
장지에 채색
2022





산장맨션
53x43cm
장지에 채색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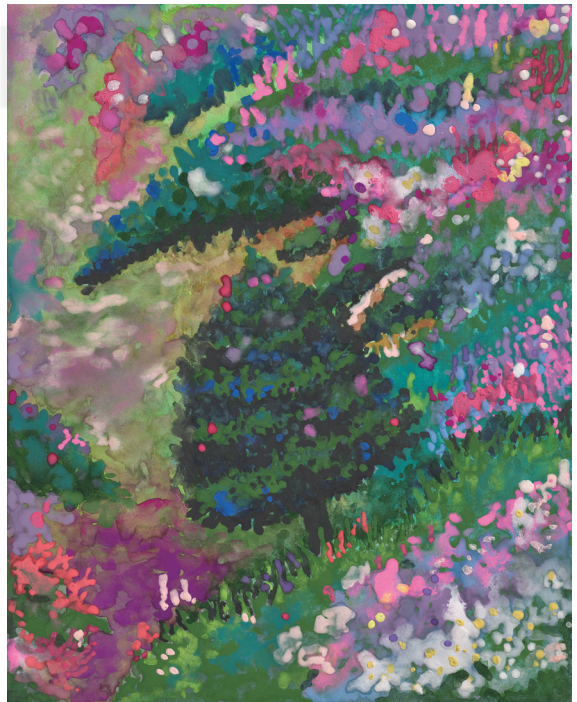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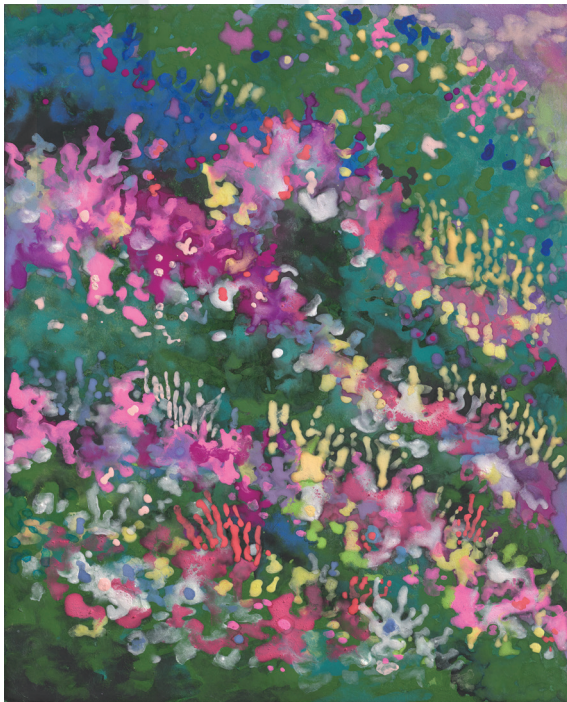
들판 이발소
 37x51cm
 색한지에 채색
 2022



나홀로 나무
24x19cm
장지에 채색
2021



뽕뽕백화점
54x41cm
장지에 채색2022



환상의 꽃밭
27.5x22cmx4,
장지에 채색
2022





색연필 문구점
190x60cm
장지에 채색
2022









살팽이1
22x16cm
장지에 채색
2021





살팽이2
43x30cm
색한지에 채색
2022





살팽이3
51x36cm
장지에 채색
2022







살괘이4
50x100cm
장지에 채색
2022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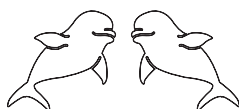
김수영 개인전

Nostalgia - 향수, 근원에 대한 그리움

2022.06.14~06.21

가회민화박물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52 B1



Kim Suyoung solo exhibition

Nostalgia

2022.06.14~06.21

GahoeMinhwa Museum

52, bukchonro, jongno-gu seoul